

天然記念物 “흑두루미”의 斷食鬭爭?

“제고향가는데 왜 막느냐”고 失郷民의 抗辯도

산짐승에 對한 法條文도 애매모호……

鳥類保護協側

○…지난 3월28일 忠南 泰安의 갈대밭에서 몸을 다쳐 동료들과 함께 시베리아로 날아가지 못한채 낙오된 천연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 한마리를 한국 조류보호협회(회장 金成萬씨) 회원이 발견, 동협회사 3일동안 미꾸라지를 먹이면서 보호한후 그동안 소련자연보호협회와 交通 타결되어 공항검역까지 끝내고 역사적인 KAL기의 소련就航 첫날인 3월31일(土) KAL기에 실려 떠나려던 찰나 허가문제로 문화재관리국에 의해 저지된 사건을 둘러싸고 法的 절차 先行고집론과 동물 특히 候鳥(季節鳥)의 보호次元서 빨리보내고 節次는 뒷문제라고 주장하는 조류보호협회 및 自然보호 優先論者간에 불과같은 논쟁이 계속….

○…비행기서 끌려? 내려온 흑두루미는 그후 서울 大公園에의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4월9일 조류보호협회에 알려진 바로는 식욕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 동협회 민영덕 사무국장에 따르면 소련 자연보호협회측에서는 당초 그날 KAL기 첫취항에 보내오면 보호했다가 시베리아로 보내기로 약속되고 그쪽에서도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실망상태라고. ○…그렇다고 국제문제화된 이제와서 우리의 法條文이나 해설하고 누가(某조류박사·문화재위원) 못가게했다고 딱찍어 말할수도 없는 형편이니 병어리 냉가슴 앓는 상태인데 문화부 고위층서도 위로의 전화가 걸려오는등 타결의 氣味도 보인다고 한다.

○…소련측은 민간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을 환영하고 있고 우리는 정부레벨에서 하는 것을 구상하는지 모르나 소련의 협회측은 정부주도로 한다면 응하지

않을것이라 했다하니 벌써 그쪽에서도 무언가 심상치않은 인상을 받은것이 아닐까?

○…현재 흑두루미는 서울大公園에 두마리뿐이고 龍仁자연농원에는 한마리도 없는 희귀 천연기념물임을 틀림없다. 그렇다고 해서 모처럼 어렵게 자연보호차원에서 국제간의 약속이 성립되고 가야할 곳으로 보내주려는 것을 기어코 끌어내린 「문화재위원」의 의도도 法을 지킨다는것 외에 무언가 있지 않나? 하는 억측들도 분분하나 동물애호·자연보호인들의 빈축은 문화재관리국에 집중되어 큰 곤욕을 치루고 있다는 소문.

○…시민들의 노기면 향의가 빗발치고 조류보호협회에도 성원의 전화가 많이 걸려오는데 이북에서 피난왔다는 어느 노인은 「제고향으로 가야할 새를 왜 잡아두느냐」고 불매인 소리를 지르더라는것. 또 어떤이는 「짐승도 감정이 있는데 밥이라도 잘먹겠느냐」면서 「문화재보호법의 어느조항에 계절따라 왕래하는 候鳥를 잡아두게 규정한것이 있느냐?」고 캐묻고 「우리나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고 그런 철학없는 고집을 한다면 국제자연보호계에서 나쁜 낙인이 찍힐까 두렵다」고 당국처사를 비난하더라는 것.

○…조류보호협회측은 조류학자인 문화재위원이 만약 자기공명심과 연구를 위해 흑두루미의 발에 「링」을 끼워서 보낼 저의도 경계하고 있는데 당국의 승인으로 보내게될때는 절대로 「링」을 끼우지 말고 자연그대로 보내야한다고 미리 당부해두고 있다고.(香)